

서평: 남아프리카의 전통 지식 – 농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
Book Review: Indigenous Knowledge on the South African
Landscape - Potential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패트릭 보일런 (Patrick J. Boylan)

런던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London), 문화 정책 관리학과, 명예교수



서평: 남아프리카의 전통 지식 - 농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

● 패트릭 보일런 (Patrick J. Boylan)

런던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London), 문화 정책 관리학과, 명예교수

자연과 장인 기술에 관한 전통적 지식이 최근의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에서 무형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었지만, 대부분의 무형유산 연구는 여전히 예술, 공예, 공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민중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및 논의는, 토착 지식을 부당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지적 재산과 관련한 측면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농업 활동에 관한 전통 지식수준과 그 잠재적 가치에 관한 본 연구는, 연구 자체에서 얻는 이점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유형의 향후 연구를 위한 모델로서,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전통 공예 및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환영 받을 것이다.

이 연구는 농경 인류학자인 팀 하트(Tim harte)가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남아프리카 인문과학 연구 위원회의 도시, 시골, 경제 프로그램(Urban, Rural and Economic Programme of the South African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HSRC) 하에서 진행되었다. 이네케 보스터(Ineke Vorster)는 유전학자이자 농업 연구 위원회(Agricultural Research Council)의 연구원으로서 1998년 이래로 소자작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필자는 아프리카 농업 개발의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상업적인 기업이 아니라 재정자원이 거의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일반적으로는 10 에이커 미만 혹은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에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처럼 적은 규모의 땅에 '서구' 산업형 농사 원칙과 관행을 도입 및 확장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이 농사 모델은 아프리카의 대다수 농민,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 일부의 농민들에게도 해당한다. 이들은 단일 경작지에 여러 종류의 곡물을 경작하고, 일부나 대부분은 자급자족적 농사를 하며 경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농사는, 훨씬 더 큰 경작지와 종종 고가의 기계, 건물, 연료, 상용으로 재배된 이종(즉

GMO) 종자와 식물, 화학 비료와 살충제 등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단일 재배를 특징으로 하는, '서양의 '선진' 농업 모델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10년 또는 20여 년 동안 의학 및 질병치료와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어왔으며, 특히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일부 전통적인 농업 지식과 관행이 현대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일부의 경우 산업적인 농경 모델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고 나타났다. 예컨대, 다섯 종류의 전통 아프리카 녹색 식물의 경우, 현재 아프리카 지역민의 식단에 오르는 이러한 녹색식물들을, 상업적인 이종 양배추로 급속히 대체하고 있지만 사실 이 녹색식물들이 이종 양배추 보다 영양학적으로 훨씬 우수하다. 비타민 A 결핍(사실상 예방 가능한 영아 실명의 잦은 원인)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 지역에서, 비타민 A가 170에서 570배 이상 많이 함유된 (칼슘은 최대 50배, 철분 20배, 인 3배) 전통 채소를 상업적인 이종 양배추로 교체하는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른 사례의 경우, 콰줄루-나탈 지방(Kwazulu-Natal Province)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주위를 돌아다니며 달걀을 훔쳐먹는 개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 지방 마을 사람들은 높은 비용을 들여 울타리나 건물에 닭을 수용하는 대신 사이잘초의 버려진 뿌리를 가지고 전통적인 닭 상자를 만들었다. 그 안에 약간의 짐을 넣은 이 상자는 개가 달을 수 없는 높이의 나무에 설치되었다. 닭은 이 상자 높이로 날아오를 수 있었고, 달걀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한 농부는 매년 새로운 사탕수수 종자를 사서 대신 좋은 종자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여 가장 튼튼한 줄기의 이삭이 완전히 발달해서 재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풀로 싸맴으로써 새들로부터 종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전통적인 농부들이, 새로이

* 팀 하트와 이네케 보스터(케이프 타운: HSRC Press, 2006, 44 pp. ISBN 0 7969 2162 8, price 75 S.A. Rand; <http://www.hsrcpress.ac.za>에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등장한 기술에 대해 보인 흥미로운 반응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한 마을이 옥수수의 조기 경작을 위한 상업형 공동 온실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 농부는 이 온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공적인 열이나 유리 등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판자 집 구조를 만들어 종자 트레이의 온도를 조절하고 집에서 만든 비료를 사용하여 온실을 대체했다. 판매 목적으로 사과를 경작하던 한 농부는 시장에서 원래 품종과 다른 새로운 품종을 요구하자 기존의 나무에 새로운 품종을 접붙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이 농부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판매 가능한 새로운 품종을 생산한 셈이다.

이 연구는 남아프리카의 공식적인 전통 지식 시스템 정책과, 보다 일반적으로는 의약용 식물에 초점을 두던 현재의 전통 지식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단지 수출을 위해 전문가 생산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외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식량을 보다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경, 식물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